

거짓 예언자와의 논쟁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

-예레미야서 27-29장을 중심으로-

김주환*

1. 서론

예레미야서 27-29장은 예레미야가 유다와 인근 국가, 바빌론에 존재하고 있는 예언자들과 논쟁하는 장면을 기록한다.¹⁾ 27장에서는 유다 인근의 국가들(27:3), 28장에는 기브온앗술의 아들 하나냐(28:1), 29장에는 바빌론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 특히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29:21), 느헬람 사람 스마야(29:31)가 각기 예레미야의 직간접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언급된다. 예언자들의 논쟁은 곧 예언의 진실성을 가려내는 중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의 청중이었던 유다인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서 27-29장이 시드기야 시대에 존재했던 바빌론의 위협을 전제로, 유다를 비롯한 인근 국가들이 바빌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이에 따라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행위논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²⁾ 물론 바빌론에 대한

* 연세대학교 강사, 구약학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109808)

1) 예레미야서 27장에서는 유다 인근의 국가들에서 활동하며 바빌론에 복종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존재들이 있으나, 그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27장 9절에서는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 등의 다양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예언자’로 통일하기로 한다.

인식과 대처는 국가의 운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학자들은 당시 예언자들 사이의 논쟁이 가지는 성격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개진했다. 일부 학자들은 예레미야서 27-29장이 프삼메티쿠스(Psammeticus)의 통치 때 일어난 바빌론에 대한 반란의 상황을 반영하며(반 바빌론 동맹), 27장에서 유다 인근 국가의 사신들이 시드기야를 만나러 왔다고 기록하는 것은 유다 역시 바빌론에 대한 반란에 동참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고 설명한다.³⁾ 27-29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밝히려는 이러한 학자들의 견해에 근거하면, 예레미야와 예언자 사이의 논쟁은 결국 바빌론에 대한 정책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예레미야와 예언자들 사이의 논쟁은 바빌론에 대한 저항의 방식에 관한 논쟁이며,⁴⁾ 이는 바빌론에 대한 인식과 유다의 행위라는 일종의 이념에 관한 논쟁이라고 해석

2) 27장 1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12절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한 것은 시드기야라고 기록한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은 시기와 전한 시기는 약 12년의 간격을 가지지만, 학자들은 27-29장이 시드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단락이라고 설명한다. 다음을 참조하라. John Andrew Dearman, *Jeremiah and Lamentations*,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02), 248; Joseph Blenkinsopp, *A History of Prophecy in Israel*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96), 245. 반면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주어진 시기는 주전 609년이며, 그것이 행해진 것은 주전 597년이라고 함으로써 27장 1절에 언급된 여호야김의 이름이 오기가 아님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Roy Wells, “Dislocations in Time and Ideology in the Reconception of Jeremiah’s Words: the Encounter with Hananiah in the Septuagint Vorlage and the Masoretic Text,” John Goldingay ed., *Uprooting and Planting: Essays on Jeremiah for Leslie Allen* (New York: T & T Clark, 2007), 328.

3) 본문을 바빌론에 대한 반란의 상황 속에서 해석하려는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을 참조하라. Blenkinsopp, *A History of Prophecy in Israel*, 245; Dearman, *Jeremiah and Lamentations*, 247; John Bright, *Jeremiah*, The Anchor Bible 21 (Garden City, N.Y.: Doubleday, 1965), 329; William L. Holladay, *Jeremiah 2: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26-52*,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118.

4) Daniel L. Smith, “Jeremiah as Prophet of Nonviolent Resistance,” *JSOT* 43 (1989), 104.

하기도 한다.⁵⁾

시드기야 시대를 전제로 하는 27-29장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 당시 바빌론의 위협이라는 국제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예언 논쟁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중요하다.⁶⁾ 그러나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예언자 예레미야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보다는 기록된 본문 자체의 특징이다. 모든 독자는 시드기야 시대에 바빌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예레미야의 활동과 논쟁에 대해서 최종 본문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 이는 시드기야 당시에 선언된 예레미야의 예언과 저자에 의하여 구성된 텍스트의 예언이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 저자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충실하게 기록하되, 단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거나 기록을 위한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다. 저자는 독자를 염두에 두었고 이 독자는 최소한 예레미야서 편찬 후 그것을 읽게 될 저자 당시의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본고는 예레미야서 27-29장을 저자 활동의 결과물로서 접근하되, 그것이 이미 국가적 대참사를 경험한 세대에게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본문에 드러나는 특징을 통해서 논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다음을 참조하라. Carolyn J. Sharp, *Prophecy and Ideology in Jeremiah: Struggles for Authority in the Deutero-Jeremiah Prose* (New York: T & T Clark, 2003), 158; Burke O. Long, "Social Dimensions of Prophetic Conflict," *Semeia* 21 (1981), 45-48; Mignon R. Jacobs, "Favor and Disfavor in Jeremiah 29.1-13: Two Dimensions of the Characterization of God and The Politics of Hope," J Harold Ellens and John T. Greene, eds., *Probing the Frontiers of Biblical Studies* (Eugene, Or.: Pickwick Publications, 2009), 137; Walter Brueggemann, *Jeremiah 26-52: to Build to Plant*, 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91), 38.

6) Jack R. Lundbom, *Jeremiah 21-3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21B (New York: Doubleday, 2004), 140.

2. 예레미야서 27장에 기록된 예언 논쟁

예레미야서 27-29장에 기록된 예언 논쟁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할 것을 종용하는 예레미야와 오히려 복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타의 예언자들 사이의 논쟁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물론 예레미야서 내에서 바빌론에 대한 복종과 저항의 여부는 유다를 비롯한 반 바빌론 동맹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 든 모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된다.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바빌론에 복종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27:10-11, 12, 17), 다른 예언자들은 바빌론에게 복종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7:9, 14). 또한 그들은 이미 바빌론으로 옮겨진 성전의 기구나 포로민이 빠른 시일 내에 돌아 올 것이라고 선언한 것으로 묘사된다(27:16, 28:3-4). 따라서 예레미야서 27-29장은 바빌론에 대한 인식의 문제, 그와 관련된 예언의 문제로 논쟁하고 있는 예언자 사이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⁷⁾

예레미야서 27-29장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각 장은 각기 다른 논쟁의 대상과 주제를 갖는다. 27장에 묘사된 예언 논쟁의 특징을 살펴보면, 예레미야에게 예언이 임하는 장면(27:1-11)과 그것이 선언되는 장면(27:12-22) 사이에 일종의 단절이 존재한다. 27장에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야웨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기록한다(1절). 학자들의 견해대로 27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야웨의 말씀이 임한 때가 시드기야의 시대이며, 여호야김의 원년이라고 기록된 것은 오기(誤記)라고 하더라도⁸⁾,

7) 텔레(Rannfrid I. Thelle)는 바빌론에 대한 적대적인 묘사를 담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전반적인 내용과는 달리 27-29장을 비롯한 일부 내용에서 긍정적인 묘사를 하는 것은 상이한 자료나 목소리 등에 대한 편집의 흔적이라고 주장한다. Rannfrid I. Thelle, “Babylon in the Book of Jeremiah (MT): Negotiating a Power Shift,” Hans M. Barstad and Reinhard G. Kratz, eds., *Prophecy in the Book of Jeremiah*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388 (Berlin ;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187–88.

8) Dearman, *Jeremiah and Lamentations*, 248; Blenkinsopp, *A History of Prophecy*

이후 이어지는 예언의 대상에 관한 언급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예레미야서 27장 2-3절에는 야웨가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고 명령한 것으로 기록한다(2절). 예레미야가 만들 줄과 멍에가 목에 걸렸다는 것은 바빌론에게 복종해야 함을 상징하는 것으로(27:8, 11), 이러한 상징행위를 통하여 야웨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은 예언자들의 보편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야웨는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바빌론을 섬길 것을 상징행위를 통하여 선언하되, 그 선언의 대상에 대해서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이라고 언급한다(3b절). 3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모인 사신들은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지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이 보낸 자들이다(3a절). 또한 야웨는 줄과 멍에를 사신들의 손에도 줄 것을 명령하는데, 이는 결국 사신들이 자신들의 왕에게 전달할 목적임이 명시된다.

블렌킨소프(Joseph Blenkinsopp)와 할러데이(William L. Holladay) 등의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각국의 사신들이 모였다는 것은 바빌론에 대한 반란의 계획에 유다가 동참할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⁹⁾ 각국의 반란 모의에 유다가 참여하려는 것인지, 유다의 주도로 반란이 모의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차치하고,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행동 명령은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각국의 사신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왕에게 전하게 하는 것임에는 분명하며, 이어지는 내용에서 줄과 멍에는 바빌론에 복종할 것에 대한 명령임이 분명하다.¹⁰⁾ 예레미야의 선언 속에서 유다를 비롯한 인근 국가가 바빌론에게

in Israel, 245.

- 9) 다음을 참조하라. Blenkinsopp, *A History of Prophecy in Israel*, 245; Holladay, *Jeremiah 2: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26-52*, 118; Bright, *Jeremiah*, 329; Dearman, *Jeremiah and Lamentations*, 247.
- 10) 일부 학자들은 예레미야와 다른 예언자 사이의 논쟁이 명예와 관련된 논쟁이라고 주장한다. W. Bartusch Mark, “From Honor Challenge to False Prophecy: Rereading Jeremiah 28’s Story of Prophetic Conflict in Light of Social-Science Models,”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36 (2009), 455–56. 또한 바빌론에 대한 대응의 방식 중 폭력적 대응과 비폭력적 대응 사이의 갈등이라고 주장한 학자는 다음을 참조하라. L. Smith, “Jeremiah as Prophet of Nonviolent Resistance,” 104.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빌론의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준 야웨의 의지로 명시된다(27:5-6).¹¹⁾ 따라서 유다와 인근 국가가 자신들이 처한 바빌론의 침공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다양한 반란의 모의는 야웨의 의지에 반하는 일이며, 그 일의 결과는 야웨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27:8).¹²⁾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추방되어 멀리 떠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27:10). 결과적으로 예레미야는 유다의 시드기야를 비롯하여 인근 국가의 왕들에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해야 살 수 있다는 내용을 선언해야 했다.¹³⁾

문제는 예레미야서 27장 12절 이하에 묘사된 예레미야의 예언 선언 대상에 관한 묘사다. 27장 12절 이하에는 예레미야의 예언 대상을 크게 둘로 묘사한다. 하나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이며(27:12), 다른 하나는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이다(27:16). 앞서 언급한 대로, 유다 인근의 사신들이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으로 와서 모여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27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예언 대상의 변화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예레미야가 사신들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드기야에게 예언했다면, 그 예언은 그곳에 있던 사신들 역시 들을 수 있었을

11) 오버홀트는 야웨가 느부갓네살을 선택했다는 예레미야서 27장의 개념은 야웨에 대한 신학적인 진술로 이해하는데,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에 대한 야웨의 선택이 반드시 현실적일 필요는 없다. 신학적 의미부여의 차원으로도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Thomas W. Overholt, “King Nebuchadnezzar in the Jeremiah Tradition,”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0 (1968), 45.

12) 텔레는 27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에 대한 묘사를 구약성서의 다른 인물들과 비교한다. 그는 야웨가 느부갓네살에게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한 것(6절)은 아담을, 땅을 준 것(6절)은 여호수아를, 야웨가 보기에 옳다고 한 것(5절)은 다윗을 상기시킨다고 설명한다. Thelle, “Babylon in the Book of Jeremiah (MT): Negotiating a Power Shift,” 198.

13) 따라서 제이콥스는 27-29장에 기록된 예언 논쟁은 친바빌론 성향의 예레미야와 반바빌론 성향의 예언자들 사이의 논쟁이라고 주장한다. Jacobs, “Favor and Disfavor in Jeremiah 29.1-13: Two Dimensions of the Characterization of God and The Politics of Hope,” 136.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27장은 바빌론의 위협 앞에 놓인 보편적인 국가들로부터 유다인으로 예언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실제로 27장은 예레미야를 향한 야웨의 명령과 그 실행 사이에서 모종의 변화가 있음을 유연하게 묘사한다.¹⁴⁾ 문자적으로는 애초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야웨의 말씀 속에서 예언의 대상에는 시드기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드기야의 이름은 단지 사신들이 누구를 보러 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언급될 뿐이다(3절, מְלָאכִים הַבָּאִים יְרוּשָׁלַם אֶל-צִדְקִיָּהוּ). 결국 예레미야서 27장 3절에 기록된 예언의 대상은 인근 국가의 왕들이임이 드러난다. 또한 인근 국가의 왕들에게 야웨의 말씀을 선언하는 방식은 줄과 멍에를 사신들의 손에 주어 전달하는 것이다.¹⁵⁾

그러나 27장 3절과 12절 사이에는 두 가지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예레미야가 목에 줄과 멍에를 걸었다는 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상징행위를 했다는 암시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12절 이하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예언 대상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각국의 사신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다만 27장 1-11절에서 언급된 멍에가 언급된다는 점(12절), 바빌론에 복종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언급된다는 점(13절), 바빌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자의 거짓을 언급한다는 점(14-16절)에서는 연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언의 대상이

14) 유연하다고 표현한 것은, ‘예레미야가 야웨의 명령과는 달리 사신들이 아니라 시드기야와 유다인에게 예언하였다.’는 설명 없이 그 대상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언의 대상이 변경되고 있음을 기민하게 읽지 않는다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야웨의 명령이 충실하게 실행되었다고 여길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예언 대상의 변경이 가진 함의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

15) 예레미야가 사신들의 손에 줄과 멍에를 주어서 각 국가의 왕들에게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 결국 바빌론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야웨가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었기 때문이다(렘 27:5). 웰스는 예레미야서 27장에서 야웨가 느부갓네살에게 “내 큰 능력과 나의 처든 팔”로 권한을 주었다는 것은 바빌론의 왕정이념에 근거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Wells, “Dislocations in Time and Ideology in the Reconception of Jeremiah’s Words: the Encounter with Hananiah in the Septuagint Vorlage and the Masoretic Text,” 327.

인근 국가의 왕으로부터 시드기야와 제사장들과 백성으로 변경된다는 점도 명확하다(27:12, 16).

이렇게 예레미야서 27장이라는 작은 단위 내에서 예언 대상이 변경된다는 점은 자신에게 임한 야웨의 말씀을 충실하게 실행하지 않은 예레미야의 과오를 드러낸다거나, 서로 다른 본문의 편집 흔적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예레미야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인근 국가의 안위보다는 유다의 안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무의미하다. 다만, 더 큰 단락인 27-29장의 흐름을 최종 본문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27-29장에서 유다와 유대인의 운명이나, 예레미야 당시 예언의 진실성 입증의 문제보다는 예레미야 자신의 시대를 뛰어넘는 함의가 발견된다.¹⁶⁾

3. 예레미야서 28-29장에 기록된 예언 논쟁

예레미야서 27장에서 예언의 대상이 유다 인근 국가의 왕들로부터 시드기야와 유다의 모든 백성으로 전환되면서 28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의 논쟁 대상이 지목된다. 27장에서는 유다 인근 국가와 유다 내에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존재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언급된다(27:9-10, 14-17). 인근 국가의 경우 거짓을 예언하는 자는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라고 칭해지며(27:9), 유다의 경우 그들은 단지 “선지자”라고 언급된다(27:14-18). 따라서 27장에 묘사된 예언 논쟁은 직접적이고 쌍방의 논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이고 일방적 논박에 가깝다.

16) 존스(D. R. Jones)는 예레미야서 27장에서 야웨가 느부갓네살을 선택했다는 것은 심판에 대한 야웨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주장한다. 존스의 설명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유다라는 국가를 뛰어넘는 야웨의 주권을 나타내는 중요한 함의를 담아낼 수 있다. Douglas R. Jones, *Jeremiah: Based on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2), 350.

이와는 달리, 28-29장에서는 논쟁의 대상이 구체적이거나 예레미야를 겨냥한 비판에 대한 논박이 기록돼 있어 논쟁 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직접적이다.¹⁷⁾ 특별히 28장에서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예언활동을 한 기브온앗술의 아들 하나나와의 논쟁이 기록돼 있다. 28장의 논쟁은 27장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다. 그 이유는 28장 1절에서 하나나의 등장은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사 년 다섯째 달”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야웨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을 기록하는 27장 1절은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함으로써 약 4년의 시간적 공백 후에 28장의 논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레미야와 하나나 사이의 논쟁은 시드기야 원년부터 4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논쟁을 전제로 할 가능성, 27장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을 전제로 할 가능성 모두를 갖는다.¹⁹⁾

28장 1절에 의하면 두 예언자 사이의 논쟁은 “여호와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를 향해 예언한 하나나의 도발로

17) Thomas W. Overholt, *The Threat of Falsehood: A Study in the Theology of the Book of Jeremiah*,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16 (Naperville, Ill.: A.R.Allenson, 1970), 27.

18) 쿤(Gerald L. Keown)은 27장에서 예레미야는 3인칭으로 묘사되는 반면, 28장에서는 1인칭으로 묘사되며, 내용 상 상호인용이 되고 있으나, 반복과 암시들로 연결된 단락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문학적으로 연속되는 논쟁으로 구성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시간 상 즉각적일 필요는 없다. Gerald L Keown, *Jeremiah 26-52*, Word Biblical Commentary 27 (Waco, Texas: Word Books, 1995), 43.

19) 오버홀트의 경우 27장과 28장이 예언 논쟁 및 명예라는 주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브루그만 역시 시간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28장에 기록된 하나나의 예언이 27장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라고 주장한다. Overholt, *The Threat of Falsehood: A Study in the Theology of the Book of Jeremiah*, 27; Brueggemann, *Jeremiah 26-52: to Build to Plant*, 24. 보트(Lawrence Boadt)는 예레미야서 27-29장이 21, 25장과 더불어 포로의 기간과 바빌론의 통치에 대한 굴복의 문제라는 주제로 엮여 있다고 주장한다. Boadt Lawrence, “Do Jeremiah and Ezekiel Share a Common View of the Exile?” Leslie C. Allen and John Goldingay, eds., *Uprooting and Planting: Essays on Jeremiah for Leslie Allen*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459 (New York: T & T Clark, 2007), 20.

시작되었다(1절). 28장 1절에는 ‘기브온 앓술의 아들 예언자 하나나가 나를 향하여 말했다(אָמַר אֵלַי הַנָּבִיא בֶן-עֲזַיָּה הַגִּבּוֹנִי)’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나가 의도적으로 예레미야를 겨냥해 예언했음을 드러낸다. 하나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야웨가 바빌론의 왕의 명을 꺾었으며, 2년 안에 성전 모든 기구와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야웨의 이름으로 선언했다(28:2-4). 또한 하나나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명을 빼앗아 꺾으며 자신이 선언한 예언을 반복한다(28:10-11).²⁰⁾

하나나의 도발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도발 직후에는 예언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지만, 하나나의 도발 이후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야웨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하나나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는 것이다.²¹⁾ 하나나가 야웨의 이름으로 예언하자,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나의 말에 동조 하면서도(28:6), 자신과 하나나 이전의 예언자들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음을 상기시키며(28:8),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28:9).²²⁾ 이에 대한 하나나의 반응은 “예레미야의 목에서 명에

20) 앞서 27장에서는 줄과 명을 만들어 목에 걸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실행하는 장면이 기록돼 있지 않다는 것을 언급했는데, 28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목에 명을 매고 있었음이 드러난다(28:10). 28장 10절에서는 하나나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명을 빼앗아 꺾었다고 기록하기 때문에 최소한 28장 내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임한 야웨의 말씀대로 줄과 명을 목에 걸고 있었음을 증명해 낼 수 있다. 그러나 28장 10절의 기록이 27장에서 명령실행 여부를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27장과 28장은 약 4년의 공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시드기야 1년과 4년 사이의 간격).

21) 윌슨은 예레미야서 27-29장에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비난은 예레미야가 중재자이지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Robert R. Wilson, *Prophecy and Society in Ancient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294.

22) 힙바드(J. Todd Hibbard)는 예레미야서 27-28장에 기록된 거짓 예언자에 대한 묘사들이 신명기 사가의 편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신명기 18장 15-22절에는 야웨의 이름으로 한 예언의 성취 여부에 따라 거짓 예언자를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 이를 토대로 예레미야서가 당시 많은 예언자들을 거짓 예언자로 규정하려고

를 빼앗아 꺾고(28:10)” 자신의 예언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예레미야와 하나님 사이의 논쟁을 기록한 28장 1-11절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도발에 대답하되, 그 대답이 야웨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언급이 기록돼 있지 않다. 오히려 7절에는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이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대답이 야웨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자신의 말임을 말하고 있다(אֲנִי רֹאֶה).²³⁾ 따라서 성전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작된 예레미야와 하나님 사이의 논쟁은 야웨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하나님과 자신의 말을 선언하는 예레미야 사이의 논쟁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야웨의 말씀은 일촉즉발의 논쟁 상황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으로 기록된다(28:12). 바투쉬는 하나님의 도전이 예레미야의 명예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실제로 예레미야가 명예에 대한 도전을 받은 것이라면, 공개적인 도전에 대해 야웨의 말로 반박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지 못한 모습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²⁴⁾

하나님과와의 공개적인 논쟁이 끝난 후에 야웨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자신에게 임한 야웨의 말씀을 하나님에게 전한 것이 도발에 대한 예레미야의 두 번째 반응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는 예언으로 응수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기 때문에 당년(當年)에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다(28:15-16). 물론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하나님은 “그 해 일곱째 달에” 죽었다고 기록한

했다는 것이다. J. Todd Hibbard, “True and False Prophecy: Jeremiah’s Revision of Deuteronom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5 (2011), 341–47; Perdue Leo G., “The Book of Jeremiah in Old Testament Theology,” A.R. Pete Diamond, Kathleen M. O’Connor, Louis Stulman, eds., *Troubling Jeremia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260 (Sheffield, Eng: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326.

23) 월슨은 예레미야서 27-29장에 묘사된 예레미야의 예언행위는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Wilson, *Prophecy and Society in Ancient Israel*, 294.

24) Bartusch, “From Honor Challenge to False Prophecy: Rereading Jeremiah 28’s Story of Prophetic Conflict in Light of Social-Science Models,” 461.

다(28:17). 본고에서 예레미야의 두 번째 반응에 관한 내용에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나의 도발이 공개적인 장소, 즉 “여호와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반면에(28:1), 하나나의 죽음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언되었다는 기록이나 암시가 없기 때문이다. 즉 도발은 공개적이었으나, 하나나의 죽음에 대한 예언과 실현 여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⁵⁾

예레미야와 하나나 사이의 논쟁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시작되었고, 결국 하나나가 죽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면, 하나나의 죽음은 하나나 자신의 예언이 거짓이거나,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실한 것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²⁶⁾ 물론 두 예언자 사이의 논쟁이 시드기야 사 년 다섯째 달에 시작됐고, 하나나의 죽음이 일곱째 달이라고 함으로써 예레미야가 죽음을 선언한 즉시 하나나가 죽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레미야서 28장에서 하나나의 죽음은 하나나가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한 결과로 예레미야가 선언한 야웨의 말씀 때문이라고 규정된다. 결국 국가의 멸망 이전에 바빌론에 복종하라는 예레미야의 예언(27장)과 바빌론을 섬기지 않아도 되며, 2년 안에 성전 기구와 포로민이 돌아 올 것이라는 하나나 및 여타의 예언자들의 예언 사이에서 유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실한 것이기에 바빌론에 의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나의 죽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으나, 하나나의 죽음이 공개적이지 않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다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인식된다.

예레미야서 29장에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아닌, 바빌론에 있는 자들과 논쟁을 하는 것으로 기록된다. 29장에 기록된 논쟁은 포로민에게 보낸

25) 텔레는 예레미야와 하나나 두 사람 모두 제사장과 온 백성들 앞에서 논쟁했다(28:1, 5)고 주장하지만, 예레미야가 야웨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것은 12절에야 기록되어 있으며, 예레미야가 야웨의 말씀을 하나나에게 선언한 것은 28장 1, 5절과는 달리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Rannfrid I., “Babylon in the Book of Jeremiah (MT): Negotiating a Power Shift,” 199.

26) 브라이트는 하나나의 죽음이 신명기 18장 20절에 기록된 거짓 예언자의 죽음에 관한 경고가 실현된 것으로 해석한다. Bright, *Jeremiah*, 330.

예레미야의 편지에서 언급되는 내용으로, 29장 15-32절에는 이들이 골라야 의 이들 아합, 아파세야의 이들 시드기야, 느헬람 사람 스마야로 언급된다.²⁷⁾ 15절에 의하면, 아합과 시드기야는 포로민들 사이에서 아웨가 일으킨 예언자로 불리는 자들이며, 스마야의 정체는 분명하게 언급되지는 않는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아웨의 이름으로 포로민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이며(29:21), 아웨가 명령하지 않은 것을 아웨의 이름으로 말한 자들(29:23), 또한 아웨가 보내지 않았음에도 포로민에게 예언하고 거짓을 믿게 한 자들이다(29:31).²⁸⁾

예레미야와 세 사람 사이의 대결은 간접적이기도 하고, 아합과 시드기야의 경우, 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반박했다고 기록하지는 않지만, 스마야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하여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고 책망함으로써,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을 직접 겨냥했음을 알 수 있다(29:27).²⁹⁾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서 27-29장은 바빌론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있어 예레미야와 같은 뜻을 가지지 않은 자들을 “거짓(נִבְּיָאִים)”과 “거짓 예언” 등의 용어들로 묶어내고 있다는 것이다.³⁰⁾ 더욱이 청중이 아닌, 독자들의 시대에는 이미 27-29장에서 언급되

27) 29장 2절에는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가 언급되는데, 이들은 단지 시드기야가 바빌론으로 보낸 자들로, 포로민들에게 예레미야의 편지를 전달할 자들로 언급된다. 툰(Karel van der Toorn)은 시드기야가 이들을 통해 바빌론에 대한 유다의 충성을 확인시키려 했다고 주장한다. Karel van der Toorn, “From the Mouth of the Prophet: The Literary Fixation of Jeremiah’s Prophecies in the Context of the Ancient Near East,” John Kaltner and Louis Stulman, eds., *Inspired Speech: Prophecy in the Ancient Near East: Essays in Honor of Herbert B. Huffmo*,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378 (London; New York: T & T Clark, 2004), 195.

28) 디어만은 28장과 29장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냐가 죽을 것이라는 말이 29장 32절의 스마야에 대한 예언에서 반복된다고 주장한다. Dearman, *Jeremiah and Lamentations*, 263.

29) 린드봄은 29장 28절에 기록된 스마야의 말이 29장 5절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예레미야와 스마야 사이의 논쟁이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Jack R. Lundbom, *Jeremiah: A Study in Ancient Hebrew Rhetoric*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7), 140.

30) Dearman, *Jeremiah and Lamentations*, 248–53.

는 예언자들은 이미 야웨가 보내지 않았으나 거짓을 예언하여 믿게 한 자들로 인식되었을 것이다.³¹⁾

4. 예언 논쟁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

본고는 예레미야서 27-29장에 기록된 예언 논쟁이 예레미야 당시 청중들에게 가지는 의미보다는 후대 독자들에게 가지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³²⁾ 예레미야서가 책으로 편찬되었다는 것은 최소한 저자의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진실한 예언자이며, 여타의 예언자들은 거짓을 예언했음이 드러났음을 의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예레미야서의 저자가 당시 예언 논쟁을 목도하거나 예언을 들었던 청중들이 누구를 진실한 예언자로 인정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은 무의미했다. 특히 기원전 586년의 대참사를 통해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자들에게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자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한 자들이 경험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시대 논쟁의 상황으로 돌아가 예언의 진실성을 다시 입증할 필요가 없었다(27:10).³³⁾

31) 스멜릭은 유다와 인근국가, 바빌론 등에 예레미야와 인식을 달리 하여, 바빌론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예언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Klaas A. D. Smelik, “Letters to the Exiles: Jeremiah 29 in Context,”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10 (1996), 286.

32) 혹자는 본고에서 말하는 독자가 어느 시대를 말하는 것인지를 논점으로 삼을 수 있지만, 독자의 시대를 특정하는 것은 본고의 논지와는 다른 방향의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독자의 시대를 특정하기보다는 예레미야의 정경화 과정 전체를 포괄적으로 독자의 시대로 상정한다. 그 이유는 유다 멸망 이후의 역사 속에서 유다는 다양한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선언한 회복의 예언을 다양한 의미에서 자신들을 향한 것으로 여길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33) 신명기 18장 9-14절에는 이방 예언자들의 예언 행위는 야웨가 이방 민족을 그 땅에서 몰아내도록 했다고 기록한다. 크리스텐센은 신명기에서 이방 예언자들의 행위를 본 받지 말라고 기록한 것은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유다의 멸망으로 포로가 된 유대인들에게는 예레미야 당시에 유대인 예언자이든, 이방인 예언자이

따라서 예레미야서의 독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드러난 진실한 예언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가 문제다. 예레미야서 27-29장을 통해서 유다 인근 국가의 왕들에게 향했던 예언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인에게 초점이 맞춰졌고,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기 보다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들었기에 바빌론에게 복종하면 살 것이라는 야웨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³⁴⁾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 가능성은 29장 1-14절에 기록된 예언의 내용에 기반한다. 예레미야는 당시 포로가 되어 바빌론에 끌려간 자들에게 쓴 편지에 포로민을 향한 야웨의 생각은 재앙보다는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임을 선언했다 (29:11). 또한 야웨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이 차면 포로민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게 했다(29:10).³⁵⁾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던 청중의 시대에는 포로가 된 이들과 여전히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들이 각기 다른 실체로 존재했지만, 예레미야서의 독자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열왕기하 25장에 의하면, 유다의 멸망과 함께 “비천한 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다인들이 포로가 되었다(왕하 25:12). 또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 역시 유다인들이 포로가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의 독자의 시대는 이미 포로민과 남은 자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 졌다고 볼 수 있다.³⁶⁾ 또한 열왕기하의 기록과

든, 바빌론에 대한 저항을 주장한 자라면 자신들을 유다 땅으로부터 몰아낸 거짓 예언자임이 각인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험했을 것이다. 또한 산명기 18장 9-14절에 기록된 예언자적 존재들의 목록은 예레미야 27-29장에 기록된 이들과 공통된 부분이 존재한다. Duane L. Christensen, *Deuteronomy 1:1-21:9*, Word Biblical Commentary 6A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1), 744.

34) David L. Petersen, “Remembering the Prophets,” John J. Ahn and Stephen L. Cook, eds., *Thus Says the Lord: Essays on the Former and Latter Prophets in honor of Robert R. Wilson*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502 (New York; London: T & T Clark, 2009), 207.

35) 할러데이는 29장 11절에 기록된 평안이 포로민들의 미래에 관해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언급하며, 예레미야의 선언 자체가 미래를 향해 있다고 설명한다. Holladay, *Jeremiah 2: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26-52*, 141.

36) 워스(Stuart Weeks)는 예레미야서를 해석할 때, 책에 기록된 예언자의 모습과 역사적으로

같이 소위 “비천한 자”가 유다 땅에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들 역시 국가의 멸망을 경험한 자들이기에 그들의 처지가 포로민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예레미야가 포로민에게 평안과 미래, 희망, 귀환 등에 관한 약속을 써서 보낸 편지는 더 이상 일부 포로가 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멸망 이후 포로가 된 모든 유다인들을 향한 예언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³⁷⁾ 예레미야서가 언제 최종형태로 완성되었는지의 여부를 논하지 않더라도, 포로가 되어 바빌론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이나, 페르시아의 등장과 함께 귀환의 시대를 살았던 자들 모두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선언되고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회복의 메시지는 결국 청중의 시대를 살았던 포로민만이 아니라, 회복을 기대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위한 약속으로 인식되도록 할 필요가 저자에게도, 독자에게도 있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³⁸⁾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예레미야서 27-29장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한 예언자의 모습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Weeks Stuart, “Jeremiah as a Prophetic Book,” Hans M. Barstad and Reinhard G. Kratz, eds., *Prophecy in the Book of Jeremiah*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388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274. 따라서 예레미야서 27-29장을 해석할 때, 예레미야 시대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거주민과 포로민 사이의 간격이 예레미야서의 저자의 시대에도 존재했을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않아야 한다.

- 37) 주(Samantha Joo)는 구약성서에서 야웨의 심판은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 야웨가 아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있음을 강조하는데,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러한 특징이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Samantha Joo, *Provocation and Punishment: The Anger of God in the Book of Jeremiah and Deuteronomistic Theology*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361 (Berlin/Boston: De Gruyter, 2006), 156. 예레미야서 27-29장에 기록된 거짓 예언자들의 주장을 듣고 유다의 멸망을 경험한 유대인들은 국가의 멸망에 대해서는 과거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은 자신들, 혹은 조상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의 대상은 포로기와 포로후기를 살았던 자신들로 여길 수 있는 능동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 38) 튜튼은 예레미야서의 초기 형태가 포로 후기를 지나면서 확장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은 편집의 과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최종 본문의 형태가 함의하는 바를 밝히는 것으로서 편집과 관련된 내용은 자세히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한다. Karel van der, “From the Mouth of the Prophet: The Literary Fixation of Jeremiah’s Prophecies in the Context of the Ancient Near East,” 201.

은 예언의 선언과 성취의 대상 범위를 좁혀 나고 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에게 줄과 멩예를 전달하여 그들의 왕들에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길 것을 종용해야 했던 예레미야였지만(27:1-11), 예레미야의 관심은 시드기야와 제사장들, 모든 백성으로 지칭되는 유다인들이었음이 드러난다(27:12-22). 또한 당시 바빌론에 대한 인식과 대응 문제로 첨예했던 갈등 구도 속에서 예레미야는 바빌론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유다의 예언자들, 특히 기브온앗술의 아들 하나나와 직, 간접적인 논쟁을 벌였고(28:1-11),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나가 죽음으로써 하나나를 위시한 당시 유다와 인근 국가의 예언자들의 선동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낸다(28:12-17). 물론 하나나의 죽음이 공개적인 사건이었다는 암시가 없었으므로, 누구의 예언이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예레미야의 청중에게 생겼으리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서의 독자들에게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가지는 진실성이 입증됐다는 것이다.³⁹⁾

따라서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과거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았던 청중에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레미야의 예언(29:1-14)에 주목하여, 그 예언이 국가 멸망을 경험한 모든 유다인들을 향한 것임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멸망에 대한 경험과 회복에 대한 기대 속에서 저자는 예언 논쟁 속에 언급된 야웨의 주권, 즉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등극이 그 스스로의 능력과 군사력에 근거한 것이 아닌, 야웨의 큰 능력과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27:5-7)이라는 사실을 넌지시 알리고, 예레미야가 선언한 평안과 미래, 희망에 관한 예언(29:11)이 성취되는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⁴⁰⁾ 야웨의 의지가 느부갓네살의 등극 원인이

39) Stulman Louis, *Jeremiah*,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248.

40) 앨런은 예레미야서 27장에서 야웨의 주권이 강조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며, 모든 나라를 주관하는 야웨의 주권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Leslie C. Allen, *Jeremiah*, The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8), 306. 바빌론의 심판이 야웨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유다의

었다면,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 유다인들이 회복되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주체(29:10)도 야웨임을 강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⁴¹⁾

5. 결론

예레미야서 27-29장에 기록된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 사이의 논쟁은 바빌론의 침공이라는 현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당시 청중의 입장에서 누구의 예언을 믿는지 문제는 국가의 명운을 달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27-29장에 묘사하는 바와 같이, 청중들에게 누구의 예언이 진실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제외한 유다의 예언자들과 인근 국가의 예언자들이 주장한 대로 바빌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편리했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27-29장에 기록된 예언 논쟁이 첨예한 논쟁 상황에 있었던 청중들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실한 것임을 드러내려는 목적이었다면, 공허한 이야기로 그치고 만다.

따라서 예레미야서 27-29장에 기록된 예언 논쟁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실한 것임을 드러내되, 청중이 아닌,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예레미야서의 독자는 바빌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한 사건을 경험한 자들로서,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경험한

회복에 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 역시 야웨의 주권 속에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 41) Jack R. Lundbom, *Jeremiah Closer Up: the Prophet and the Book*, Hebrew Bible Monographs 31 (Sheffield: Phoenix Press, 2010), 105. 블렌킨썩은 텍스트와 독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해석의 행위에는 개인의 필요(needs)와 예상(presupposition), 선입견(prejudice)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이는 곧 다양한 사회적 그룹 내에서도 작용하는 요소라고 주장한다. Joseph Blenkinsopp, *Opening the Sealed Book: Interpretations of the Book of Isaiah in Late Antiquity* (Grand Rapids, Mich.: William B Eerdmans PubCo, 2006), XV.

자들이다. 저자는 독자에게 27-29장에 기록된 예언 논쟁을 통해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실한 것임을 드러냄으로써, 또 다른 예레미야의 예언이 자신들에게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려고 했다. 그 예언은 29장 1-14절에 기록된 예언으로, 야웨가 포로민을 향해 평안과 미래, 희망을 선언하며,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돼 있다.

결국 포로기와 귀환의 시대를 살았던 포로민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믿지 않아 바빌론에게 멸망 당했던 과거를 딛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언된 귀환의 예언을 자신들을 향한 야웨의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만약 예레미아서 27-29장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실한 것임을 드러내려 했다면, 이는 예레미야 시대의 청중이 아닌, 독자의 시대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귀환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대했던 포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예언 논쟁, 거짓 예언, 예레미야, 바빌론, 포로민, 독자

<Key Words>

Prophetic Controversy, False Prophecy, Jeremiah, Babylon, Exiles, Reader

* 접수일 2021년 2월 14일, 수정일 2021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7일

참고문헌

- Allen, Leslie C., *Jeremiah The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8.
- Bartusch, Mark W., “From Honor Challenge to False Prophecy: Rereading Jeremiah 28’s Story of Prophetic Conflict in Light of Social-Science Models,”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36 (2009), 455 - 63.
- Blenkinsopp, Joseph, *A History of Prophecy in Israel*,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96.
- , *Opening the Sealed Book: Interpretations of the Book of Isaiah in Late Antiquity*, Grand Rapids, Mich.: William BEerdmans PubCo, 2006.
- Bright, John, *Jeremiah*, The Anchor Bible 21, Garden City, N.Y.: Doubleday, 1965.
- Brueggemann, Walter, *Jeremiah 26-52: to Build to Plant*, International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91.
- Christensen, Duane L., *Deuteronomy 1:1-21:9*, Word Biblical Commentary 6A,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2001.
- Dearman, John Andrew, *Jeremiah and Lamentations*,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02.
- Hibbard, Todd J., “True and False Prophecy: Jeremiah’s Revision of Deuteronom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5 (2011), 339 - 58.
- Holladay, William L., *Jeremiah 2: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26-52*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 Jacobs, Mignon R., “Favor and Disfavor in Jeremiah 29.1-13: Two Dimensions of the Characterization of God and The Politics of Hope,” J. Harold Ellens and John T. Greene, Eds., *Probing the*

- Frontiers of Biblical Studies*, Eugene, Or.: Pickwick Publications, 2009, 131 - 55.
- Jones, Douglas R., *Jeremiah: Based on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92.
- Joo, Samantha, *Provocation and Punishment: The Anger of God in the Book of Jeremiah and Deuteronomistic Theology*,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361, Berlin/Boston: De Gruyter, 2006.
- Keown, Gerald L., *Jeremiah 26-52*, Word Biblical Commentary 27, Waco, Texas: Word Books, 1995.
- Lawrence, Boadt, "Do Jeremiah and Ezekiel Share a Common View of the Exile?" Leslie C. Allen and John Goldingay eds., *Uprooting and Planting: Essays on Jeremiah for Leslie Allen*,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459, New York: T & T Clark, 2007, 14 - 31.
- Long, Burke O., "Social Dimensions of Prophetic Conflict," *Semeia* 21 (1981), 31 - 51.
- Lundbom, Jack R., *Jeremiah 21-36: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21B, New York: Doubleday, 2004.
- _____, *Jeremiah Closer Up: the Prophet and the Book*, Hebrew Bible Monographs 31, Sheffield: Phoenix Press, 2010.
- _____, *Jeremiah: A Study in Ancient Hebrew Rhetoric*,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7.
- Overholt, Thomas W., "King Nebuchadnezzar in the Jeremiah Tradition," *Catholic Biblical Quarterly* 30 (1968), 39 - 48.
- _____, *The Threat of Falsehood: A Study in the Theology of the Book of Jeremiah*,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16, Naperville, Ill.: A. R. Allenson, 1970.
- Perdue, Leo G., "The Book of Jeremiah in Old Testament Theology," A. R. Pete Diamond, and Kathleen M. O'Connor and Louis Stulman

- eds., *Troubling Jeremiah*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260, Sheffield, Eng: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320 - 38.
- Petersen, David L., "Remembering the Prophets," John J. Ahn, and Stephen L. Cook eds., *Thus Says the Lord: Essays on the Former and Latter Prophets in honor of Robert R. Wilson*,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502, New York; London: T & T Clark, 2009, 195 - 207.
- Sharp, Carolyn J., *Prophecy and Ideology in Jeremiah: Struggles for Authority in the Deutero-Jeremiah Prose*, New York: T & T Clark, 2003.
- Smelik, Klaas A. D., "Letters to the Exiles: Jeremiah 29 in Context,"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10 (1996), 282 - 95.
- Smith, Daniel L., "Jeremiah as Prophet of Nonviolent Resistance," *JSOT* 43 (1989), 95 - 107.
- Stulman, Louis, *Jeremiah*, Abingdon Old Testament Commentarie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 Thelle, Rannfrid I., "Babylon in the Book of Jeremiah (MT): Negotiating a Power Shift," Hans M. Barstad and Reinhard G. Kratz eds., *Prophecy in the Book of Jeremiah*,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388,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187 - 232.
- Toorn, Karel van der, "From the Mouth of the Prophet: The Literary Fixation of Jeremiah's Prophecies in the Context of the Ancient Near East," Kaltner John and Stulman Louis, Eds., *Inspired Speech: Prophecy in the Ancient Near East: Essays in Honor of Herbert B. Huffmo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378, London; New York: T & T Clark, 2004), 191 - 202.
- Weeks, Stuart, "Jeremiah as a Prophetic Book," Hans M. Barstad and Reinhard G. Kratz eds., *Prophecy in the Book of Jeremiah*, Beihefte zur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388,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265 - 74.

Wells, Roy, "Dislocations in Time and Ideology in the Reconception of Jeremiah's Words: the Encounter with Hananiah in the Septuagint Vorlage and the Masoretic Text," John Goldingay eds., *Uprooting and Planting: Essays on Jeremiah for Leslie Allen*, New York: T & T Clark, 2007, 332 - 50.

Wilson, Robert R., *Prophecy and Society in Ancient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초록>

거짓 예언자와의 논쟁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

-예레미야서 27-29장을 중심으로-

김주환

(연세대학교)

예레미야서 27-29장은 시드기야의 시대 바빌론의 침공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예레미야와 거짓 예언자 사이에 논쟁이 있었음을 기록한다. 각 장에서 묘사하는 논쟁의 대상은 상이한데, 27장에서는 유다 인근 국가에 있는 예언자들과 유다의 예언자들, 28장에서는 하나나라는 유다의 예언자, 29장에서는 바빌론 포로민 중 아합과 시드기야, 스미야와 논쟁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중요한 것은 저자가 첨예한 예언 논쟁의 장면을 묘사하면서도, 당시 청중들에게 예레미야의 예언이 가진 진실성이 입증되었다는 기록과 암시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28장에 기록된 하나나라와의 논쟁 결과,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라는 그 해 죽임을 당한 것으로 기록된다. 하나나의 죽음은 하나나의 예언이 거짓이며,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실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저자는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나의 도발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하나나의 죽음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과 그 성취는 공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27-29장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가진 진실성을 당시 청중에게 입증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진실성을 알고 있는 독자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 시대보다 확대된 포로민들에게 아웨가 약속한 평안과 미래, 귀환의 희망을 선언하려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바빌론에 복종하지 않은 유다가 멸망한 것과 같이, 이제 포로가 된 자들에게 아웨가 약속한 귀환의 희망이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함으로써, 포로기와 포로 후기를 살았던 유다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Abstract>

**The Theological Significance of the Conflicts between
Jeremiah and the False Prophets:
Focusing on the Book of Jeremiah 27-29**

Ju-Hwan Kim
(Yonsei University)

The Book of Jeremiah chapters 27 through 29 record that there were conflicts between Jeremiah and the false prophets, centering on the Babylonian invasion in the reign of Zedekiah. The opponents in the conflicts described in each chapter are different as follows. Chapter 27 depicts a conflict with the prophets in Judah and nearby nations, chapter 28 depicts a conflict with the prophet Hananiah of Judah, and chapter 29 depicts a conflict with the Babylonian captives, Ahab, Zedekiah, and Shemaiah. The important thing is, while the author depicted the scenes of acute prophecy conflicts, the author did not leave any record or hint to the audience at the time that the integrity of Jeremiah's prophecy had been proven. In particular, as a conclusion to the conflict with Hananiah recorded in chapter 28, it is recorded that Hananiah was killed that year, according to Jeremiah's prophecy. Hananiah's death is an important basis for proving that Hananiah's prophecy was false while Jeremiah's prophecy was true. However, the author depicted Hananiah's provocation against Jeremiah as being made in public, while Jeremiah's prophecy and fulfillment in Hananiah's death are depicted as private rather than public even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author in writing chapters 27 through 29 was not to clarify that the integrity of Jeremiah's prophecy had been

proven to the audience at that time, but rather to convey a specific message to the readers who already knew its integrity. This message is intended to declare the peace, future, and hope of return that Yahweh promised to the expanded captives rather than to those in Jeremiah's day. The author would have been able to provide the lead of a new beginning for the Jews living in the exilic and postexilic periods, by sending them a message that, just as the kingdom of Judah was destroyed for not obeying Babylon according to Jeremiah's prophecy, the hope of return promised by Yahweh would also be fulfilled.